



약업인 이영수. 신신제약 창업주인 이영수 명예 회장이 지난 6일 96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나 약업인 이영수는 대한민국 약업사(史)에,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의 기억속에 살아있다. 약업인 이영수는 한국인의 기술로 국내 최초로 근 육통 등 통증을 해소해주는 신신파스를 만들어냈다. 사이언스앤디뉴스는 60여 년 '파스외길'을 걸어온 약업인 이영수 명예회장을 추모하면서 영전에 이 글을 바친다.

영원한 약업인, 고 이영수 신신제약 명예회장 추모

1959년 신신제약 창업, 국내최초 국산파스 개발... "파스외길 60여 년"



▲ 생전의 고 이영수 명예회장



▲ 신신파스 첫 제품. 영문의 제조사명, 효과 등 설명이 초기의 우리나라 제약시장 분위기를 잘 설명해준다.

파스대통령 고 이영수 신신제약 명예회장. 1959년 신신제약을 창업, 2020년 까지 대표로 신신을 이끌었다. 타계까지 약업계에 63년간 종사한, 최고의 경영자로 평가 받는다.

약업인 이영수는 1927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났다. 서울 흥국초등학교, 경성상업학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지금의 경영대학에 해당하는 다롄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당시로서는 엘리트였다.

졸업 후 국내 제약-화학 기업에 근무하던 청년 이영수는 23세때 1950년 6·25 전쟁을 겪었다. 3년 후 휴전. 전쟁참화, 모든 것이 부족했던 때 국민 대부분은 육체노동으로, 극심한 근육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 무렵 밀수품인 일본산 파스가 유통됐지만 있는 너무 비쌌다. 청년 이영수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생각으로 32세(1959년) 신신제약을 창업했다. 신신제약 창업후 곧바로 자체기술로 만든 파스를 출시했다. 그러나 품질에서 일본의 니찌반 제품에 크게 밀렸다. 국민들은 일제 밀수품만을 찾았다. 그로인해 사업초기 "포기할까도 생각했다"고 한다.

이에 청년 경영자 이영수는 당시 기술적으로 크게 앞서있는 일본의 파스 제조사 니찌반을 찾아 기술 제휴를 요청했다. 그러나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이영수 사장은 끈질겼다. 한국의 젊은 제약인 이영수의 거

듭된 설득에 니찌반은 신신제약과 1969년 파스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신신제약 창업 10년만의 기술도입 성공이었다. 당시 일본 니찌반 사장은 "언제나 정중했던 청년 이영수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약업계는 전한다.

당시 니찌반으로 부터의 기술도입은 '무용제 저온 연합법'. 이전 까진 파스제조 과정에서 열에 의해 약효 성분이 쉽게 손실됐으나, 니찌반 신기술 도입으로, 약효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반창고 파스의 주원료인 면사(綿絲)의 수급이 원활치 못했다. 당시 면사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었는데 중국이 대량 매점 금값이 됐다.

청년 약업인 이영수는 기발한 착상으로 위기를 넘겼다. 임직원들이 입고있던 단벌 와이셔츠를 벗어 제품을 만들어 보았다. 답은 "가능하다"였다.

이에 이영수 사장은 직물업체인 경성방직을 찾아갔고, 방직회사로 부터 최우선 실수요

자로 선정돼 '원료위기'를 넘겼다. 이영수 사장은 위기 속에서도 파스의 '노하우' 축적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도 제품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1971년엔 파스, 반창고, 에어

로졸 살충제 등을 이란에 수출했다. 이 해의 의약품 등의 생산액은 1억 원을 넘었다. 국회의장이 주는 우수기업상을 받았다. 1972년엔 태국과 필리

핀으로도 파스 등을 수출했다. 신신제약은 1970년대 세계가 석유파동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성장의 거둬들었다. 1975년엔 생산실적이 전년 대비 50%나 늘었다. 1976년엔 이

에서 80% 이상 더 성장하면서 연간 생산실적 10억원 고지에 올라섰다. 파스류 단일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잖은 것이다. 1973년 신신제약은 기술을 수입했던 일본에 파스와 반창고를 역수출 했다. 일본으로부터 파스기술을 수입한지 10년만에 수출한 것이다.

이를 전후 신신파스의 수출 국가는 12개국으로 늘었다. 1983년엔 국내 제약업체로는 최초로 '1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파스류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제약사로 자리매김 했다. 1990년대 들어 제약업체엔 화장품-식품 등으로의 사업 다각화 바람이 불었다. 그럼에도 경영자 이영수는 '한 우

을 택했다.

그러나 경영자 이영수는 인력 감축이 아닌, 서울 본사의 안산공장 이전으로 경비를 줄이는 위기 돌파에 나섰고, 임직원들은 이에 적극 호응, 결속했다. 창업 '동지'들은 하나같이 "이영수 사장은 '사람'을 귀히 여긴 경영자였다"고 회고한다.

신신제약은 2007년엔 냉온찜질 동시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신신파스 '아렉스'라는 명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최고경영자 이영수의 '집념결실' 이었다.

처음에는 냉찜질로 붓기를 빼주고, 차츰 온찜질로 전환돼 혈액 순환을 돕고 통증을 완화해준다. 기존의 유기용매제 대

국내 첫 냉·온찜질 동시작용 '신신파스 아렉스' 개발... "명품" 평가받아
앞선기술 가진 日 '니찌반'에 10년 기술제휴 요청끝 1969년 제휴실현
일제해방 즈음 現 경영대학 해당 중국 다롄고등상업학교 졸업 엘리트

중국이 파스 주원료 '綿絲' 매점 원료난 때 경성방직 찾아 위기 넘겨
1973년, 기술 수입한 일본에 파스류 역수출... 필리핀 등 에도 수출
IMF 때 "인력감축 아닌 본사 안산공장 이전 임직원 결집" 위기 극복

물'을 택했다.

그는 기존 제품의 품질 개선과 노후 공장시설 정비 등 내실에 힘을 쏟았다. 이 같은 노력을 평가받아 1997년 제25회

신 천연고무 연합 방식으로 제조, 피부 안전성과 밀착성, 신축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명품으로 평가받는 '신신파스 아렉스'는 출시후 개선에

보건의 날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1997년 말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에 부딪혔다.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기업들은 대응책의 하나로 인력감축

개선을 거듭, 효과와 안정성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있다.

한국 약업사는 최고 경영자 이영수를 '파스의 명장'으로 영원히 기억해 줄 것이다.



▲ 안산공단의 신신제약 공장(본사)



▲ 불후의 명품으로 꼽히는 '신신파스 아렉스' 제품